인문연구 제8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8. Vol. 83, No. 1, pp.179~208
http://dx.doi.org/10.21211/JHUM.83.6

17세기 전반 北人系 南人 文士들의 교유*

- 지식교류의 일 양상 -

김효정**

〈차 례〉

1. 머리말
2. 북인계 남인의 등장과 학문적 특징
3.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 - 지식교류의 일 양상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전반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 활동을 고찰하여 지식교류의 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다. 17세기는 왜란을 겪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시기였다.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보조원(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박사과정수료)

재건할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 북인의 사상을 지니고 남인의 당색을 띤 북인계 남인의 등장은 근기남인의 지식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북인계 남인 문사들은 근기와 영남지역, 당파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유를 통해 활발한 지식교류를 전개해 나갔다. 지식교류는 지식이 전달되고 수용과 변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으로 재생산되는 근간이자, 지식이 확장되는 원동력이 된다.

본고에서는 17세기 전반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지식교류 양상을 서신을 통한 지식의 수정과 보완, 서적을 통한 지식의 유입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한백겸과 정경세 그리고 이수광과 정경세는 수차례의 서신 왕래를 통해 열띤 지적 토의를 이어나갔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반박하는 등 지식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지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김세렴은 이식과 함께 일본에서 가져온 『성리자의』의 교정을 보고 이를 간행하여 북방지역에 성리학적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주제어: 지식교류, 북인계 남인, 영남남인, 서인, 지식수용, 지식확산

1. 머리말

17세기는 왜란을 겪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시기였다.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를 재건할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요구되었다.[1] 또한 이 시기는

1)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명학, 명학 등의 다양한 사상이 수용되었다. 윤휴와 박세당 등이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초기 실학사상이 나타

명·청 교체기라는 대외정세 속에서 붕당정치가 본격화되던 시기이다. 붕당은 학문적·정치적 이념을 함께 하는 정치집단이자 당대의 학문과 사상을 논하던 지식집단이기도 하다. 동·서 분당과 이후 동인의 남·북 분파, 그리고 북인 내에서의 분열,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등 학문적·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지식집단의 분열과 재편[2]이 계속되었다.

이 가운데 광해군 시기 정권을 장악했던 북인들은 인조반정 이후 대북 세력이 실각하면서 크게 위축되었고 후손들은 정계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중 일부 세력은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에 참여하거나, 남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북인의 후손들도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경기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북인과 남인의 학문을 골고루 취하여 새로운 학풍을 개척해 나갔으니 이들이 곧 북인계 남인들이다.[3] 韓百謙(1552~1615)·李睟光(1563~1628)·李尙毅(1560~1624)·洪可臣(1541~1615) 등과 이들의 뒤를 이은 李敏求(1589~1670)·尹善道(1587~1671)·金世濂(1593~1646)·李元鎭(1594~1665)·許穆(1595~1682)·尹鑴(1617~1680)·柳馨遠(1622~1673)·李夏鎭(1628~1682) 등이 이에 속한다.

북인계 남인은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당색을 띠고 있지만 학문적 사상은 북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선조말에서 광해군, 인조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인에서 남인화 하였다.[4] 개방적이고 학

나고 있었다. 성리학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다. 학파의 정립과 분열현상의 심화, 화이론과 의리론의 대두, 성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활발한 논쟁들을 들 수 있다. (금장태, 『韓國儒學史의 理解』, 민족문화사, 1994, p.73.)

2)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지식집단이 출연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집단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정호훈, 『朝鮮後期 政治思想 硏究-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004, p.108.

4) 선조 말기에서 광해군 시기 그리고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정

문적 다양성을 모색하는 지적 성향을 지닌 이들은 서울과 근기지역에 살고 있던 근기남인들과 결합하면서 근기남인의 사상적 기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근기남인은 18세기 실학 시대를 연 주요 지식집단으로 自得을 통해 지적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博學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퇴계학과 주자학만을 중시하던 영남남인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의 학문적 근원에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던 북인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북인계 남인에 대한 연구는 정호훈[5]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후기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면서 근기남인의 학문적·사상적 연원이 북인의 사상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논의하고 '북인계 남인'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북인계 남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17세기 전반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 활동을 고찰하여 지식교류의 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교류는 지식이 전달되고 수용과 변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으로 재생산되는 근간이자, 지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이 시기 북

치적 파란을 겪은 북인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서인이나 남인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인들의 黨派譜인 北譜에는 후손들이 남인으로 전향한 경우 "見 南譜"라고 기록되어 있어 북인계 남인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全州李氏 李睟光의 長子 李聖求를 비롯해 廣州李氏 李延慶(1484~1548), 延安李氏 李光庭(1552~1629), 咸平李氏 李濮(?~?), 全義李氏 李鐸(1509~1576)·李貞幹(1360~1439), 韓山李氏 李性源(1576~1629)·李山海(1539~1609), 固城李氏 李增(1419~1480), 龍仁李氏 李鎰(1538~1601), 全州柳氏 柳義孫(1398~1450), 文化柳氏 柳誠源(?~1456)·柳夢鶴(?~?), 慶州金氏 金鼎鉉(1591~1675), 密陽朴氏 朴震元(1561~1626), 高嶺朴氏 朴京範(?~?), 江陵崔氏 崔文混(1610~1684) 등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북인의 여러 가문 후손들이 남인화 했음을 볼 수 있다.

5) 정호훈,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17세기 북인계 남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인계 남인 문사들은 근기와 영남 지역, 당파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유를 통해 활발한 지식교류를 전개해 나갔다. 이들의 활발한 지식교류는 지식이 전달되고 충돌과 수용, 조정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활동과 지식교류의 일 양상을 고찰하여 아직까지 정치사상 연구 분야에 머물러 있는 북인계 남인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기초 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이루어질 북인계 남인 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2. 북인계 남인의 등장과 학문적 특징

1) 북인계 남인의 등장

동인의 남북 분당으로 성립된 남인은 현종대 예송 논쟁을 거치며 숙종 시기에 붕당으로써 확립되었고, 숙종대 3차례의 환국을 거치며 정치적 부침을 겪다가 갑술환국으로 실각하였다. 이 시기에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으로 분리된 것으로 본다.[6] 근기남인과 영남남인은 모두 퇴계 이황을 존숭하며 그의 학문을 추종하였다. 그러나 영남남인이 퇴계학과 주자학을 중시하는 학문적 방향을 견지한 반면 근기남인들은 선조말 이후 꾸준히 북인계열의 문사들을 수용하면서 이들이 지니고 있던 사상과 지식에 영향을 받아 영남남인과는 다른 학문적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학문적 경향의 차이와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상황의 급변은 기존 지식집단의 재편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

6) 윤재환, 「근기남인 학통의 전개와 성호학의 형성」, 온지학회, 『온지논총』 36, 2013, p.18.

북인계 남인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우선 북인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많았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인들은 임진왜란 종전 후 집권 세력이었던 유성룡을 탄핵하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7] 정권을 쥐게 된 북인은 1599년 洪汝諄(1548~1609)의 대사헌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어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다. 대북은 李山海(1530~1609)·李慶全(1567~1644)·任國老(1537~1604) 등으로 이들은 정계에서 남인과 서인을 배제하려 하였고, 소북은 南以恭(1565~1640)·金蓋國(1572~1657)·李德馨(1561~1613) 등으로 남인과 서인에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다. 대북과 소북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북은 대북이 주장하는 인목대비의 폐위에 반대하며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 또한 대북 세력인 정인홍은 '晦退辨斥'[8]과 曺植의 추숭작업[9]을 추진하며 정국을 독점하려 하였고, 영창대군의 죽음과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은 남인·소북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10]

남인과 북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영향을 고르

---

7)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16日(丁酉). "司憲府啓曰: "豐原府院君柳成龍, 本以巧慧便佞之資, 飾之以文墨小技, 久專國政, 擅弄朝權, 誤國病民之罪, 不可殫記. 當初癸, 甲之年, 賊勢纔退, 而兩湖尙全, 若於此時, 至誠籲呼於天朝, 請兵請糧, 收拾我國兵力, 一以討賊復讎爲心, 則重恢之策, 庶幾可望, 而首倡羈縻之說, 遂成講和之階, 使人心解體, 國勢不振, 以至今日之糜爛, 中外人心, 孰不痛惋."

8) 1611년(광해군 3) 3월 鄭仁弘이 스승 曺植이 李滉으로부터 무함 받은 것을 변호하는 箚子를 올려 이황을 비판하고 晦齋 李彦迪의 잘못을 지적한 일을 말한다. 이때 李榮 등 500여 명의 유생들은 단체로 소를 올려 이언적과 이황을 옹호하고 정인홍의 '회퇴변척'을 공격하였다. 이에 광해군이 유생들을 처벌하려 하자, 그들은 성균관을 나가 掩堂에 들어가는 등 소동이 벌였다. 이후 관료들과 지방 유생들까지 양측으로 나뉘어 몇 달이나 시비 논쟁을 벌이게 되자 정국은 혼란해졌다.

9) 광해군의 등극과 함께 집권 세력이 된 대북의 중심인물 정인홍이 스승 조식의 추숭작업을 벌여 영의정에 추증하고 봉사하는 백운사원을 세우고 사액을 내렸다.

10) 정호훈, 앞의 책, p.107.

게 받고 새로운 학풍을 개척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북인과 남인의 학문적 장·단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학풍을 개척해 나갔다. 이들이 곧 북인계 남인이다.[11] 이들은 표면적으로 남인의 당색을 지니고 남인들과 연대하여 활동하였지만 정치적·학문적 사상의 연원은 북인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17세기 전반은 북인계 남인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인물로는 한백겸·이수광·김세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徐敬德(1489~1546)과 閔純(1519~1591)의 학통에 영향을 받고 북인과 긴밀히 유대하면서 남인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였다. 이들의 후손들은 인조대 이후 17세기 중·후반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며 근기남인의 중추를 이루었다.[12] 인조반정 이후 대북세력이 몰락하자 북인계 남인은 북인 계열에서 이탈하거나 적극적으로 남인화가 된 경우가 많았다. 대북의 폐모론에 반대하며 북인과 결별하고 남인화 한 경우로는 尹善道(1587~1671), 김세렴 등이 속한다. 그리고 북인의 후손으로 남인화 한 경우로는 李尙毅의 손자인 李元鎭, 尹孝全의 아들 尹鑴, 유흠의 아들 柳馨遠 등이 있다.[13] 이들은 선조와 광해군대에 활동하였던 북인의 정치적·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근기와 영남남인들의 학문에서도 영향을 받았다.[14]

북인들은 당시 주자 중심의 성리학에서 벗어나 도가, 불교, 양

11) 정호훈, 위의 책, pp.107-108.

12) 한백겸의 아들 韓興一(1587~1651)은 인조대 남인의 주요 구성원이었고, 홍가신의 손자 洪宇遠(1605~1687)은 예송 시기 남인을 주도하였다. 또한 오억령의 손자와 증손 吳挺緯(1616~1692), 吳挺昌(1634~1680), 吳始壽(1632~1681) 등은 숙종대 淸南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상의의 손자인 李夏鎭도 숙종대 남인으로 활약하였다. 김세렴은 동인의 영수였던 김효원의 손자이며, 유형원의 고모부이다.

13) 정호훈, 위의 책, p.110.

14) 정호훈, 위의 책, p.5.

명학 등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고자 하였다. 博學과 實用의 추구는 북인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지닌 북인들이 근기남인으로 전향하면서 근기남인의 지식 체계에 변동을 주었다. 근기남인은 퇴계학을 근간으로 하는 남인계 사상에 실용과 박학을 추구하는 북인계의 사상을 절충하면서 주자학을 절대시한 서인과 영남남인과는 확연히 다른 학풍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경향의 변화는 북인의 유입과 북인 사상의 수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15] 근기남인과는 다른 사상과 지식을 지닌 북인의 유입은 근기남인의 인적 구성과 지식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인계 남인의 등장은 이후 근기남인의 학문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許穆(1595~1682)·尹鑴(1617~1680)·柳馨遠(1622~1673)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16]

17세기 이수광의 『芝峯類說』, 18세기 이익의 『星湖僿說』, 19세기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으로 이어지는 백과 사전류의 편찬은 박학과 실용을 추구하던 북인계 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용을 중시하였던 이들의 사상은 17세기 후반 근기남인의 실학적 지반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17] 북인의 사상은 17세기 중·후반 근기남인 학자들이나 18세기 실학자 李瀷(1681~1763)에게 영향을 미쳤고, 북학파인 박제가(1750~1805)나 19세기 호남의 실학자 河百源(1781~1845) 등에 승계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갔다.[18]

---

15) 이진경, 「近畿南人의 도가사상 연구」, 충남대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6, 2016, 320쪽.

16)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허목·윤휴·유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한국문화』 19, 1997, p.159.

17) 신병주, 「17세기 전반 북인 관료의 사상-김신국·남이공·김세렴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8, 1992, p.150.

18) 신병주, 「남명학파와 화담학파의 학풍 계승에 관한 연구」, 한국역사연구

2) 북인계 남인의 학문적 특징

북인계 남인은 花潭 徐敬德(1489~1546)과 南冥 曹植(1501~1572)의 문인[19]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서경덕과 조식의 학문과 사상이 이들의 바탕을 이룬다. 조식의 학문이 영남남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 서경덕의 학문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변 지역인 서울·경기지역의 사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20]

서경덕 학문의 특징은 성리학을 본령으로 하면서도 象數學, 張載, 老壯 사상 등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여 보완 절충하고 있다는 점이다.[21] 서경덕은 학문을 궁구함에 있어 궁리와 격치, 그리고 탐구와 사색을 중요시 여겼다. 그는 기존의 학설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自得'을 중시하며 자신만의 학설을 이루어 나갔고,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개방성을 지녔다.[22]

서경덕 학문에 영향을 끼친 邵雍(1011~1077)은 북송 시기의 학자로 그의 학문을 象數學이라 칭한다. 상수학은 세계의 모든 현상

회, 『역사와 현실』 53, 2004, p.163.

19) 서경덕의 문인으로는 李山海(1536~1584)와 아들 李慶全(1567~1644), 그리고 杏村 閔純(1519~1591)의 제자인 韓百謙(1552~1615)·洪可臣(1541~1615)·洪履祥(1549~1615) 등을 들 수 있다. 조식의 문인들로는 鄭仁弘(1536~1623), 崔永慶(1529~1590), 金宇顒(1540~1603), 鄭逑(1543~1620)·郭再祐(1552~1617)·金孝元(1542~1590) 등이다.

20) 남명의 문인들은 대북을 형성하고 화담의 문인들은 소북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와 연구의 부족으로 이 글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밝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점은 다음 글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담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1) 신병주, 「화담학과 근기사림의 사상」,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47, 2005, p.43.

22) 신병주, 위의 논문, p.47.

을 하나의 질서로 象과 數로 나타낸 것이다. 상수학의 핵심은 '觀物'을 통해 自如한 모습을 인식하고, 인간이 인식 주체로서 관물을 통해 체득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23] 상수학의 많은 부분은 道家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인식론은 자연과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24] 또한 소옹의 상수학은 外在의 禮法을 중시하였다. 그는 천지자연의 運數와 度數를 인간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은 운수와 도수를 연역하여 제정된 법제의 실행을 통해서라고 이해하였다. 예법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망, 그리고 구조를 보여주는 매개물이며 이를 지배하는 것이 道라고 보았다. 그리고 도는 법을 통하여 실현되고 법은 도를 실천하는 도구로 인식하였다.[25]

북인계 남인은 서경덕 학문의 영향으로 邵雍의 象數學과 도가사상, 양명학 등을 수용하는 등 탈주자학적인 면모를 보이며 지적 영역의 확장을 이루어나갔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학문적 바탕에 둔 북인계 남인들은 새로운 지식의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천해 나갔다. 이는 한백겸, 이수광, 김세렴 등이 법치를 중히 여겨 법과 형벌, 제도의 시행을 제도화 하는데 적극적인 면에서 볼 수 있다.

한백겸은 자연현상이나 법과 제도의 성격을 상수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潮汐의 이치와 현상을 인체의 호흡에 비유하고 이를 확대해 우주의 호흡 현상으로 설명한 〈潮汐辯〉[26]이나 기자의 정전을 상수학적으로 설명한 〈箕田遺制說〉 등은 그의 상수학적

23) 황광욱, 『화담 서경덕의 철학사상』, 심산문화, 2003, p.50.
24) 이승수, 「17세기 후반 지식인의 邵雍·陸九淵·陳亮 수용양상 연구-拙修齋와 三淵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31, 2001, p.182.
25) 정호훈, 「17세기 전반 경기남인의 세계관과 정치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11, 2001, pp.215-221.
26) 韓百謙, 〈潮汐辯〉, 『久菴遺稿』 上.

사유를 보여준다. 한백겸의 기전설은 실학사상의 선두인 유형원[27]을 비롯한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후 李瀷(1681~1763)[28]에게 계승되었다.[29] 한백겸이 상수학을 철저히 연구한 것은 이식의 〈久菴遺稿序〉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0]

이수광과 김세렴은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수광은 '法行而仁義亦行'이라 하며 법의 실행은 곧 仁義의 실행이라고 하였다. 이는 법제도 실행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이 역시 상수학적 사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31] 김세렴 역시 이수광처럼 법제와 형벌의 시행을 중요시 여겨 정치에 있어 엄한 형벌의 시행을 강조하였으며[32], 관용보다는 위엄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였다.[33] 또한 형벌이 시행되어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교화가 밝아져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였다.[34]

---

27) 柳馨遠, 〈田制攷說〉, 『磻溪隨錄』 卷5.

28) 李瀷, 〈箕田續說〉, 「箕田攷」

29) 1790년(정조 14) 이가환, 이의준 등이 지은 『箕田攷』에는 한백겸의 〈箕田說〉, 〈箕田圖〉, 柳根의 〈箕田圖說後語〉, 許筬의 〈書箕田圖說後〉, 李瀷의 〈箕田續說〉이 수록되어 있어 한백겸의 기전설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30) 李植, 「久菴遺稿序」, 『久菴遺稿』 上. "惟於象數之變, 制度之宜, 研究極深, 有不泥於前說者, 此等見解, 雖以程朱嫡傳, 亦互有同異, 不容後賢更着一辭不得也."

31) 李睟光, 〈條陳懋實箚子〉, 「雜著」, 『芝峯集』 卷22. "古之聖王, 道之以德敎, 齊之以政刑. 猶未足以盡天下之變, 於是爲之法制, 使仁義之敎, 寓於法制之中, 法行而仁義亦行, 故民畏之而不犯, 誅之而不怨, 由其法制之素明也."

32) 金世濂, 〈居官雜記〉, 『東溟集』 卷6. "問政治當明其號令, 不必嚴刑以爲威, 曰號令旣明, 刑罰亦不可弛, 苟不用刑罰, 則號令徒掛墻壁爾, 與其不遵而梗吾治, 曷若懲其一而戒百, 與其覈實檢察於其終, 曷若嚴其始而使之無犯, 做大事, 豈可以小不忍爲心."

33) 金世濂, 〈居官雜記〉, 『東溟集』 卷6. "問爲政者, 當以寬爲本而以嚴濟之, 曰某謂當以嚴爲本而以寬濟之, 曲禮謂莅官行法非禮, 威嚴不行, 須是令行禁止, 若曰令不行禁不止, 而以是爲寬則非也."

34) 金世濂, 〈居官雜記〉, 『東溟集』 卷6. "修刑罰以齊衆, 明敎化以善俗, 刑罰立

이후 근기남인의 학문적 사상을 확립하는 주요 인물인 허목, 윤휴 등의 사유에는 소옹의 상수학적 세계관과 인식론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북인계의 지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면모이다. 또한 근기남인들에게서 보이는 박학의 추구와 관심, 明代 학문의 학습과 이의 적극적인 수용은 이들의 지적 사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35]

3.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 - 지식교류의 일 양상

교유는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詩·文은 문사들의 교유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며, 책무의식의 충족과 자기완성의 방편이자 지적 교류의 수단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문사들은 시문을 이용한 수창과 간찰 왕래를 통해 공감·논쟁·추인·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발한 지적 교류를 하였다.[36] 직접적인 만남과 교유는 가장 효과적인 지식 확산의 수단이기도 하다.[37] 17세기 전반 북인계 남인 문사들은 근기와 영남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지적 논의를 전개하며 지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상대방에게 전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지식교류를 엿볼 수 있다. 지식은 비록 개인이 궁구하여 얻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

則敎化行矣. 敎化成而刑罰措矣. 雖曰尙德而不尙刑, 顧豈偏廢哉."

35) 정호훈, 앞의 논문, pp.210-211.

36) 심경호, 「조선 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14, 2009, pp.415-416.

37) 피터 버크,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생각의 날개, 2015, p.144.

회, 집단과 집단의 영향관계로 나타나므로[38] 이들의 지식교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식집단과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장에서는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와 지식교류 양상을 고찰하는 일환으로 한백겸, 이수광, 김세렴 등의 북인계 남인 문사들과 鄭經世(1563~1633), 李埈(1560~1635) 등의 영남남인 문사, 李植(1584~1647) 등의 西人 문사들 간에 전개되었던 지식교류의 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론은 어떤 문제 혹은 대상을 놓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상호 소통하며 논의하는 일을 말한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상대에게 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가며 지식을 확장해 나간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용과 조정을 거쳐 확산되기도 한다.

북인계 남인 문사인 한백겸, 이수광, 김세렴 등은 영남남인, 서인 등과 교유하며 서신을 통해 토론을 벌이거나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여 확산시키는 등 지적 사유 세계와 학문 세계를 넓혀 나갔다.

1) 서신 왕래를 통한 지식의 수정과 보완

서신은 대개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왕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거대한 정보망을 갖추지 못했던 과거에는 서신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오고갔다. 한백겸과 정경세, 그리고 이수광과 정경세는 근기와 영남이라는 지역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만남과 서신을 통해 지

38) 허재영, 「지식 생산과 전파 수용에 따른 지식 권력 연구 방법론」,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66, 2018, p.4.

식을 교류하고 확장해 나아갔다.

한백겸은 서경덕의 제자인 閔純(1519~1591)의 문인으로 李彦迪(1491~1553)과 李滉(1501~1570)의 사상을 사숙하고 이수광, 정경세 등과 친밀히 교유하였다. 한백겸은 영남남인들과의 교유도 돈독하였는데 그중 정경세와의 교류는 각별하였다. 정경세는 한백겸의 묘갈명[39]을 써줄 정도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웠다. 정경세는 예학과 시문에 뛰어난 유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한백겸은 주역과 예학에 밝았고, 상수학의 도리와 사리에 통달하였다.[40] 정경세는 주역에 밝은 한백겸을 周易講官으로 추천하여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주역에 뛰어난 점을 인정받은 한백겸은 1602년(선조 35) 왕명에 의해 『周易傳義』의 교정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백겸은 자신을 찾아온 정경세와 함께 예학과 『周易啓蒙』의 揲蓍法(시초로 점치는 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백겸은 훗날 揲蓍法의 의문점을 7가지 조목으로 서술하였다.

> 기유년 여름 내가 강가에서 상중에 있을 때 진양 사람 정경임이 방문하여 서로 함께 예에 대해 강론하다가 마침내 『계몽』의 설시법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견이 다른 것이 없지 않았으나 슬픔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그 설명을 자세히 하지 못하였다. 그 후 막냇동생이 의심스러운 점을 묻기에 말을 주고받다가 깨끗하고 맑으며 정밀하고 은밀함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말로는 부족해 또 글로 써서 읽어 보니 음양 조화의 단서를 여기서 구할 수 있을 듯하다. 정경임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41]

---

39) 鄭經世, 〈通政大夫戶曹參議韓公墓碣銘〉, 『愚伏集』, 卷18.

40) 鄭經世, 〈通政大夫戶曹參議韓公墓碣銘〉, 『愚伏集』, 卷18. "先取啓蒙書, 俯而讀仰而思, 沈潛觀玩, 夜以繼日, 其於象數之原, 變化之妙, 蓋有心融神會, 欲罷不能之味."

41) 韓百謙, 〈啓蒙揲蓍辯〉, 『久菴遺稿』 上. "己酉夏, 余守制江上, 晉陽鄭景任見訪, 相與講禮之餘, 遂及啓蒙揲蓍之法, 所見不無異同, 顧哀皇造次之間, 未得

한백겸은 설시법에 대한 의문사항을 7가지로 논하면서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던 정경세와의 일을 기록하였다. 정경세가 한백겸을 찾아와 설시법을 논할 당시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았으나 한백겸이 부친상 중이라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훗날 한백겸은 막냇동생이 설시법의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설시법에 대해 궁구하였다. 막냇동생은 韓浚謙(1557~1627)을 가리킨다. 한백겸·한준겸 형제는 설시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궁금한 점들을 정경세에게 묻고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글은 정경세가 한준겸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 〈揲蓍辨〉 등의 편은 이내 선유가 지은 설 이외에 따로 의론을 세웠으므로 별도로 논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시 보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42]

정경세는 한준겸에게 서신을 보내 설시법에 대해 따로 논의한 것이 있다며 이를 보아주기를 청하였다. 위의 글을 통해 한백겸과 정경세가 설시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기에 한준겸도 함께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한백겸과 정경세의 토론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설시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이견을 배타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였고,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백겸은 부친상과 조모상을 연이어 당했는데 상중에 있으면서

究其說, 其後因舍季叩疑, 說來說去, 頗得潔淨之妙, 言之不足, 又形之於筆, 旣而讀之, 陰陽造化之端, 或可卽此而求之, 如使景任見之, 復以爲如何也."

42) 鄭經世, 〈答韓益之浚謙〉, 『愚伏集』 卷9. "揲蓍辨等篇, 乃於先儒成說外別立議論, 故別論之, 亦望更着眼目如何."

도 『역학계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밤낮으로 독서에 몰두하였다.[43] 그가 『주역』을 중시하고, 도가, 양명학 등 다양한 학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경덕 학풍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44] 한백겸은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성향을 바탕으로 사단칠정과 같은 성리설에서부터 易, 曆法, 天文, 地理, 歷史 등 다방면에 걸쳐 자신만의 독창적인 지식세계를 구축해 나갔다.[45]

이수광은 1623년(광해군 15) 순천부사에서 물러나 대북 정권과 등을 돌린 후 수원으로 내려가 은거 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동안 이수광은 저술 활동에 집중하였는데 『채신잡록』도 이 시기에 저술한 것이다. 이수광은 『채신잡록』을 저술한 후 정경세에게 『채신잡록』에 대한 비평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 졸고 채신록은 잡기견문입니다. 아직 논박을 면하지 못한 말이므로 지금의 몽매함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더하고 빼서 개선하려는데 그중 한 두 개는 마땅히 다시 보아야 하니 감히 이것을 바르게 하길 구합니다. 다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46]

이수광은 정경세에게 자신의 글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직접 가

---

43) 鄭經世, 〈通政大夫戶曹參議韓公墓碣銘〉, 『愚伏集』, 卷18. “庚辰, 丁外艱, 外除纔閱歲, 又受重王母憂, 積年羸疚, 絶無外誘, 乃得專意於窮格之功, 先取啓蒙書, 俯而讀仰而思, 沈潛觀玩, 夜以繼日.”

44) 지금완, 「韓百謙의 『久菴遺稿』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24.

45) 한백겸의 문집인 『久菴遺稿』에는 「箕田遺制說」·「深衣說」·「四端七情說」·「啓蒙揀辨」 등 객관적이고 고증적인 방법을 통한 논증한 독창적인 이론들이 수록되어 있다.(지금완, 위의 논문 참조)

46) 李睟光, 〈與鄭副學采薪錄評〉, 「雜錄」, 『芝峯集』 卷24, “拙稿采薪錄, 乃雜記見聞, 故語未免踳駁, 今蒙來喻, 就加刪改, 第其中有一二宜復者, 敢以是求正, 倘再見敎幸甚.”

르침을 구하였다. 이후 이수광과 정경세는 수차례의 서신 왕래[47]를 통해 열띤 지적 토론을 전개해 나갔다.

> 보여 주신 성대한 원고 한 질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탄을 일으키게 하는 바가 마치 통달함을 얻은 것 같네. 망양의 놀라움이 또한 어떠하였겠으며 흠모의 지극함을 이길 수 없었으나, 말의 뜻이 크고 높아서 老子와 莊子의 기미가 있는 듯하네. 노형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혹 고요함을 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고, 세상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 깊어서 이르게 된 것은 아닌가?[48]

위의 글은 이수광의 부탁을 받은 뒤 정경세가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정경세는 이수광의 『채신잡록』에 老莊의 기미가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주자학적 견해에서 『채신잡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경세는 세 번의 변의[49]를 통해 『채신잡록』의 내용에 대해 비평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수광은 정경세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의 조언을 수용하거나 혹은 이견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

47) 鄭經世, 〈與李潤卿〉·〈答李潤卿〉, 『愚伏集』 卷9. ; 李睟光, 〈與鄭副學采薪錄評〉·〈重與鄭副學書〉, 〈鄭副學書〉·〈鄭副學復書〉, 『芝峯集』 卷24. 〈鄭副學書〉와 〈鄭副學復書〉는 정경세의 서신이다.

48) 鄭經世, 〈與李潤卿〉, 『愚伏集』 卷9. "盛稿略窺一帙, 已令人亹亹興嘆, 如得卒業焉. 則望洋之驚, 又當如何, 不勝歆艷之至, 第其語意太高, 似有老莊氣味, 不識老兄何故作此見解耶, 得非耽靜太過, 厭世太深而致之耶"

49) 鄭經世, 〈李芝峯采薪錄辨疑〉·〈再辨〉·〈李芝峯采薪錄辨疑三辨〉, 「雜著」, 『愚伏集』 卷14. 『채신잡록』에 대한 세 번의 변의에는 이수광과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경세의 답변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정경세는 『채신잡록』의 내용에 대해 주자학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學以悟道爲要, 道以忘言爲妙'라는 구절은 禪과 老子의 사상이라며 반박하였고, '所謂至人者, 跡乎俗而心乎隱者也'라는 구절 역시 노자의 和光同塵과 같다며 노장의 기미가 있음을 염려하였다. 정경세는 程子, 朱子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채신잡록』의 내용을 비평하였다.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는 등 뜨거운 지적 논의를 이어 나갔다. 다음의 글은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서신의 내용과 『채신잡록』에 대한 정경세의 변의 중 일부이다.

(가) 지난 번 몇 가지 조목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이야기하였는데, 준엄하게 물리치지 않고 이에 채용해 주고, 그 가운데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논변해 주었으니, 이는 바로 옛사람들의 일인데 오늘날에 보게 되어서 그지없이 감사하네. 그러나 나의 뜻에는 여전히 꼭 맞지 않는 곳이 있어, 감히 다시 어두운 소견을 전달하여 바로잡아 가르쳐 주는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네. 삼가 별지에 이를 써서 올리니, 좁고 꽉 막혔다고 나무라지 말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게.[50]

(나) 깨우쳐 주는 글을 받고서 분격하여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을 알았네. 그러나 처음 글에 至人이라는 글자를 썼으니, 사람들이 의심을 일어나는 것을 면할 수 없네. 그것을 고칠 수는 없는가? (…중략…) 앞에서 말하기를, "정신을 사랑하고 아깝게 여기는 것이 곧 학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의심했던 것뿐이네. 지금 보내준 것을 보니 卽자를 亦자로 바꾸었는데, 아주 좋고 좋네.[51]

(다) 제1조 '지인'이라는 두 글자는 비단 〈黃帝素問〉과 여러 서책에 모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주자의 감흥시에도 '지인이 원화를 잡았네.[至人秉元化]"라고 하였으니 비록 삭제하여 고치지 않아도 후학들의 의심이 없을 것이네. 어찌 생각하는가? (중략) 제6조 본래 乃자로

---

50) 鄭經世, 〈答李潤卿〉, 『愚伏集』 卷9. "前日獻疑數條, 不蒙峻却, 乃辱採用, 其未中理處, 又賜反復論辨, 此是古人之事, 而得見於今日, 感戢無已, 然於鄙意, 猶有未能十分契合處, 不敢不再陳瞽見以求鐫誨之益, 謹具別紙呈上, 伏望勿以陋滯爲罪, 而有以終敎之也."

51) 鄭經世, 〈再辨〉, 「雜著」, 『愚伏集』 卷14. "蒙喩, 知有激而發, 然着箇至人字, 不免惹起人疑, 未可改之耶. (…중략…) 前云愛惜精神, 卽所以爲學, 故奉疑耳. 今承示諭, 易卽以亦, 甚好甚好." 이 내용은 이수광의 『芝峯集』 卷14. 「附」에 〈鄭副學書〉에도 수록되어 있다.

지었는데, 지금 亦자로 고쳤네. 보내준 글에서 말한 것이 옳네. 내가 몹시 탄복하고 있네.[52]

(가)는 이수광이 보낸 서신에 대한 정경세의 답장이다. 정경세는 이수광이 자신의 의문점들을 채용해주고 세세히 답변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였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의문점들을 재차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식교류를 지속하였다. 별지에 수록된 정경세의 의견은 〈再辨〉과 『지봉집』의 〈鄭副學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53] (나)와 (다)는 정경세의 〈재변〉과 이수광의 〈重與鄭副學書〉 중 일부 내용이다. (나)에서 정경세는 이수광이 자신이 보낸 서신의 내용에 발끈하였음을 말하면서 '지인'이라는 용어가 노장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고치기를 권하였고, 卽자를 亦자로 바꾸어 주었다.[54] 이수광은 (다)와 같은 답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수광은 '지인'이라는 말은 주자도 시어로 사용한 말이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수광은 주자학 이외의 다양한 사상의 수용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異端이 비록 儒道를 해치는 바가 있지만 유익한 부분도 있으므로 취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55] 이점은 주자학 이외의 학문과 지

52) 李睟光, 〈重與鄭副學書〉, 『芝峯集』 卷24. "第一條, 至人二字, 非但素問諸書皆有之, 朱子感興詩亦曰, '至人秉元化' 云云, 雖不刪改, 可無後學之疑, 如何如. (…중략…) 第六條 本作乃字, 今改亦字, 來喩是矣, 愚竊服焉." 정경세는 이수광이 자신이 보낸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한 서신을 받고 이수광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鄭副學復書〉

53) 『채신잡록』에 대한 정경세의 두 번째 변의중 일부 내용은 『지봉집』의 〈鄭副學書〉에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다.

54) 이수광이 정경세에게 보낸 〈重與鄭副學書〉에는 乃자를 亦으로 바꾸었다고 되어있다. 문집의 편찬과정에서 卽자와 乃자가 혼재되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5) 李睟光, 〈禪門〉, 「外道部」, 『芝峯類說』, 卷8. "異端固害儒道, 亦有所取益者, 道家之無爲, 乃有爲者之戒, 其養生乃戕生者之戒, 釋氏之見心, 乃放心

식 수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정경세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은 정경세가 乃자를 亦자로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뻐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수정·보완해가며 지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서로의 지식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지식과 의견을 수용하거나 반박하면서 지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모습은 지식 교류의 한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서적을 통한 지식의 유입과 확산

지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적교류를 따라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어 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과 충돌하여 변이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지식이 유입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서적의 유입이다. 조선시대 새로운 지식의 유입은 대부분 중국의 서적을 통해서 이루지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과의 서적 유통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였는데 특히 일본과의 서적유통은 제약이 더욱 많았다.[56]

者之戒, 其戒殺乃嗜殺者之戒."

56) 조선과 일본의 서적 유통은 倭館과 통신사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칙적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서적유출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란이후 통신사행이 재개되고 횟수와 규모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유출되는 서적의 종류와 수량도 늘어났다. 『징비록』·『고사촬요』·『여지승람』 등 다양한 서적들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유학을 정치 문화의 지표로 내세운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조선의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퇴계와 율곡 등의 서적을 구하여 조선의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서적은 통신사들과 일본의 유생, 승려들 간에 있었던 창화집들을 비롯하여 『古今文人刊行錄』·『年代記』·『地勢論』 등의 공적 서적과 『白石集』·『嘉文亂記』·『童子問』 등 개인이 저술한 사적 서적들이 유입되었다.(김경숙, 「조선후기 韓·日서적 교류 고찰」, 中韓人文科學硏究會, 『한중인문학연구』 23, 2008, pp.230-250.)

金世濂(1593~1646)[57]은 1636년 통신사행단의 府使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는 통신사행을 수행하는 동안 일본인 승려들을 만나 함께 시를 수창하기도 하고 문답을 통해 성리학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활발한 지식교류를 하였다. 김세렴이 남긴 『海槎錄』과 『槎上 錄』에는 그가 인지하고 있던 일본의 기존 지식과 사행을 통해 맞닥뜨린 새로운 지식과의 충돌로 인한 혼란,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면서 지적 영역을 확장해 가는 적극적인 지식교류의 모습이 담겨있다.

김세렴은 영남남인[58]뿐만 아니라 西人인 이식과 친분이 두터웠다. 김세렴은 평소 이식을 형처럼 여기며[59] 교유하였다. 이식과 김세렴이 나눈 교유시[60]가 여러 수 있고, 이식은 김세렴의 祭文[61]

---

57) 金世濂(1593~1646)은 동인의 영수였던 金孝元(1542~1590)의 손자로 동인의 핵심 가문에서 성장하였다. 어머니는 許篈의 따님이고, 許筠은 김효원의 사위이므로 허균과 김세렴은 사돈이자 고모부, 생질간이 된다. 김세렴은 유희발의 따님과 사별을 하고 유시민의 따님과 혼인하였는데, 磻溪 柳馨遠이 그의 조카이다. 유형원은 어릴 적 부친을 잃고 고모부 김세렴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므로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58) 김세렴은 북인계 가문에서 성장하며 영남남인인 유성룡의 문인들과도 친분을 돈독히 하였는데 그중 李埈과는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유하였다.(李埈, 〈答金道源 世濂〉·〈與金道源〉·〈答金道源〉·〈答金道源〉, 『蒼石集』 卷10.) 이준은 김세렴이 현풍현감으로 재임할 당시 〈跋苞山規約〉을 써 주었고(李俊, 〈跋苞山規約〉, 「雜著」, 『東溟集』 卷6. 포산은 현풍의 다른 이름이다.), 유성룡의 시호를 추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李埈, 〈與金道源〉, 『蒼石集』 卷10. "西厓先生始卒所豎立, 可卓冠近代, 而身歿二十年, 尙未擧易名之典, 公議之鬱鬱久矣. 今得追賜謚號, 而與傑然大節相契, 豈非以左右在此地之力也, 可見君子之立朝, 必有輔於世道, 而吾輩自此死猶無遺恨矣.")

59) 李植, 〈祭金判書〉, 『澤堂別集』 卷12. "我伏郊端, 罕見朝紳, 公乃撥煩, 命駕提壺, 晤言至夜, 肺肝相輸, 寧知此別. (…중략…) 公少於我, 視我如兄, 世無知己, 交鮮親仁, 矧茲耆暮, 凋喪殆盡, 獨賴公存, 理義相勉, 別多會少, 意勤懷緬."

60) 李植, 〈玄風宰金道源被誣逮獄 蒙 恩還縣 東湖舟上贈別〉·〈寄金道源日本行中〉, 『澤堂集』 卷6. ; 〈寄金道源日本行中〉, 『澤堂別集』 卷4.

61) 李植, 〈祭東溟金判書文〉, 『澤堂別集』 卷12.

과 序文[62], 後書[63] 등을 써 주기도 하였다. 김세렴은 1636년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오면서 200 여수가 넘은 사행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槎上錄」[64]이다. 1637년 3월 한양으로 돌아온 김세렴은 평소 형처럼 여기며 친분이 두터웠던 이식에게 시를 보여 주었고, 이식은 「사상록」의 시를 읽고 직접 비평을 달아 주기도 하였다.[65]

김세렴은 1637년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오는 길에 『性理字義』[66]라는 책을 일본에서 가져왔다. 이 책의 원래 서명은 『字義』이나 『성리자의』 혹은 『北溪字義』로 불린다. 이 책은 朱熹의 문인인 北溪 陳淳(1159~1223)[67]이 쓴 책으로 程朱學의 핵심 용어를 26개로 분류한 뒤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일종의 성리학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마침 字訓을 공부하고 있던 이식은 김세렴이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유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책을 빌려 보고 일일이 교정을 본 후 돌려주었다. 다음의 글은 〈書陳北溪性理字義後〉로 김세렴이 『성리

62) 李植, 〈送金學士世濂 使日本序〉, 『澤堂集』 卷9.

63) 李植, 〈書東溟槎上錄後〉, 「槎上錄」, 『東溟集』 卷4,

64) 「사상록」은 1636년(인조 14) 8월 11일 한양을 출발하여 1637년 3월 9일 한양에 돌아오는 통신사행 기간 동안 지은 시를 모은 시집으로 122제 22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65) 이식의 「사상록」 비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도상의 「東溟 金世濂의 「槎上錄」 연구-澤堂 李植의 批評을 中心으로」,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20, 2002. 참조.

66) 『성리자의』는 26개의 범주로 나뉘어 총 22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일본, 조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김세렴이 일본에서 가져온 『성리자의』는 1632년 우에몬 나카노(右衛門中野)가 교토에서 출판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판본은 1277~1368년 사이의 중국에서 출판된 판본을 저본으로 다시 찍은 것이다. 다른 판본에는 실려있는 「엄릉 강의」 4편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陳淳 저・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p.47.)

67) 남송 사람으로 자는 安卿, 호는 北溪, 시호는 文安이다. 朱熹의 高弟로 일컬어지며 陸九淵의 심학을 배척하고 주자학을 선양하는 데 힘썼다. 저서에 『北溪文集』・『北溪字義』・『嚴陵講義』・『二辨』・『論孟學庸口義』 등이 있다.

자의』를 가져오게 된 정황이 잘 나타나있다.

> 내가 사신으로 봉사하게 되어 이 나라에 온 때부터 종종 물어오는 것이 대개 음양의 변화와 성명에 대한 논의였는데 하학이라 하찮게여겼다. 돌아올 때 오사카[大阪]에 도착하여 이 책을 얻어서 보았는데 처음에는 지향하는 것을 다 알기 어려웠으나 이 책에서 내용을 뽑아보니, 내가 아직 보고 읽지 못한 것이라 매우 기뻤다. 마침내 베껴 적으라 명하였다. 우리 동방에 서적이 두루 실렸는데 이 책이 전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찌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68]

김세렴은 일본에서 『성리자의』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책이 조선에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가져왔다. 그는 1642년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자 이 책을 간행하여 북방지역에 유포하였다.[69] 김세렴이 『성리자의』를 함경도에 유포하려고 했던 이유는 북방지역에는 성리학 서적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성리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은 이식이 쓴 〈陳北溪字義後序〉 중 일부로 이식이 교정을 보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다.

> 내가 자훈에 관한 책을 엮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서 얼른 빌려다 살펴보았다. 그것은 정자와 주자의 정밀하고 세밀한 정론을 종류별로 모아서 글자의 뜻에 덧붙여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었다. 성인의 학문을 깊이 이해함에 하나의 큰 공안[70]이 된다 할 것

---

68) 金世濂, 〈書陳北溪性理字義後 奉使日本時〉, 『東溟集』 卷8. "自不佞奉使入是邦, 往往來問者. 大抵陰陽變化性命之說, 其於下學蔑如也. 還到大坂, 得見是書, 始知向者發難儘, 從是書拈出, 蓋不佞所未見讀而喜甚, 遂令謄寫, 吾東方載籍極博, 是書不少傳, 何歟, 豈其晦顯有時哉."

69) 『仁祖實錄』 卷45, 仁祖 22年, 1月19日(戊申). "咸鏡監司金世濂以北方書籍稀罕, 至於性理文字, 得見者尤尠, 刊出若干書, 印布列邑, 仍進『近思錄』·『小學』·『性理字義』·『讀書錄』".

70) 禪家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의도적으로 준 의문의 말로 話頭라고도 한다.

이니, 소학에서 아동들이 학습하는 책으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도원이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면서 장차 이 책을 간행하여 유포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기에, 내가 교정 작업을 아울러 마치고 돌려주었다. (…중략…) 북계 선생은 바로 주 문공의 학문을 계승한 뛰어난 제자였다. 초려 오씨[71] 같은 무리들은 훈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척하였는데, 이런 책이 만들어진 것은 異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방 사람들의 방언은 중국과 다르므로 '性理' 등의 글자를 해석할 때에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동쪽을 가리키는데도 서쪽이라고 하는가 하면 도적을 자식으로 인식하는 하는 것은 모두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도 도원이 이 책을 발굴해 낸 덕분에 경서를 배우는 자들이 이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른 학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72]

이식은 『성리자의』가 성리학의 개념과 용어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異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식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늘 오역으로 인해 性理의 글자를 해석함에 있어 분명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했었는데 김세렴 덕분에 경서를 배우는 학자들이 正學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식이 『성리자의』의 교정에 힘쓴 것은 『성리자의』가 이학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71) 원나라 초기에 활약한 吳澄(1249~1333)을 말한다. 程鉅夫가 그의 초당에 草廬라는 현판을 붙여준 이후 초려선생이라고 불렸다.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나 陸象山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비판을 받았다. 『元史』 卷170, 『宋元學案』 卷92.

72) 李植, 〈陳北溪字義後序〉, 『澤堂別集』 卷5. "時不佞方輯字訓書, 聞而喜甚, 亟借而觀焉. 則乃類聚洛建精微定論, 附字義以約說, 爲聖學體認大公案, 不惟小學童習之書而已也. 今者道源出按關北, 將謀梓刻行布, 故仍爲之校定而歸之, (…중략…) 而北溪其文學高弟也, 草廬吳氏輩例以訓詁精密斥之, 則此書之作, 其亦異學之强對乎. 我東人方言自異, 凡性理等字譯解, 全欠指的, 喚東作西, 認賊爲子者, 皆由是也. 幸賴道源之表章此書, 使經生學子, 擧以從事, 則其爲正學入門之助, 豈膚末也哉."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학문을 추구하는 북인계 남인과는 달리 주자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이단시 여기는 서인의 학문적 성향을 이식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세렴과 이식 두 사람 모두 성리학을 당대 지식의 근간[73]으로 여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세렴은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한 후 『성리자의』를 여러 고을에 배포하고, 조정에도 이를 올렸다.[74] 그는 함경도관찰사로 재임하면서 〈咸興府鄕約〉[75]을 지어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힘을 썼다. 성리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은 백성들에게 성리학의 이치를 알리고 교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리자의』는 〈함흥부향약〉의 규율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리자의』를 매개로 한 김세렴과 이식의 지식교류는 성리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북방지역에 성리학이라는 지식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지식의 확산은 공간을 이동하여 확산되는 수평적인 형태도 있지만 지식 수혜의 계층을 대중으로 확산하는 수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76] 『성리자의』의 간행과 유포는 성리학이라는 당대 보편 지식을 확산시키려는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제의 실천을 중요시하던 김세

---

73) 조선의 성리학은 조선이 건국이념으로 채택한 程朱學을 의미한다. 정주학은 우주발생론에서 존재론, 윤리학, 사회·정치·철학 등을 하나의 체계로 갖추게 된 지식으로 조선이 사회 운영의 핵심적 근거로 삼고 그 지식의 진리성에 대하여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지식이다.(김형찬, 「조선시대 지식생산체계의 연구방법과 지식사회의 층위」,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p.14.)

74) 『仁祖實錄』 卷45, 仁祖 22年, 1月19日(戊申). "咸鏡監司金世濂以北方書籍稀罕, 至於性理文字, 得見者尤尠, 刊出若干書, 印布列邑, 仍進『近思錄』·『小學』·『性理字義』·『讀書錄』".

75) 金世濂, 〈咸興府鄕約〉, 「雜著」, 『東溟集』 卷6. 〈함흥부향약〉은 향약의 제도적인 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활동방향과 의사 결정과정, 조직과 인원의 구성, 규칙의 제정과 적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76) 피터 버크, 앞의 책, pp.162-163.

렴의 학문적 바탕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우연히 발견한『성리자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성리학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고 널리 유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새로운 지식이 수용되고 확산되는 지식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17세기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와 지식교류의 일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북인계 남인 문사들은 지역과 당색을 넘나드는 활발한 지식교류를 통해 지적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한백겸·이수광·김세렴 등의 북인계 남인 문사들이 영남남인인 정경세, 서인인 이식과 교유하면서 보여주었던 활발한 지식교류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수정·보완해가며 지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모습과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지식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등장과 근기남인으로의 유입은 근기남인의 기존 지식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북인내의 분열과 정권의 몰락은 지식집단의 인적 구성과 지식체계의 재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기남인의 실용과 박학 추구는 북인계의 사상과 지식이 유입,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학문은 화담 서경덕에게서 근원하고 있으며, 서경덕 학문의 바탕에는 성리학과 더불어 소옹의 상수학, 불교, 도가사상 등 다양한 학문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인계 남인 문사들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근간으로 상수학과 도가, 양명학 등 폭넓은 학문과 지식을 추구하였다. 북인계 남인 문사인 한백겸·이수광·김세렴 등은 서신 왕래와 서적의 유입을 통해 지식

을 교류하며 수정 보완해 나가고 새로운 지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지역과 당색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지식교류는 지식이 고착화되어 편협해지거나 스스로 소멸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북인계 남인 문사들이 보여준 교유활동은 추구하는 학문과 사유세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지식이 전파, 수용, 변이,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고는 17세기 북인계 남인 문사들의 교유활동을 고찰하고, 지식교류의 일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다. 그러나 지식교류의 일부 단면만을 거칠게 고찰한 부분이 많아 미진함이 남는다. 앞으로 북인계 남인 문사들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다각적이고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金世濂,『東溟集』, 한국문집총간 95
柳馨遠,『磻溪隨錄』
李家煥・李義駿 篇,『箕田考』
李 瀷,『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
李尙毅,『少陵集』, 한국문집총간 12
李睟光,『芝峯集』, 한국문집총간 66
_____,『芝峯類說』
李 植,『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
_____,『澤堂別集』, 한국문집총간 88
李 埈,『蒼石集』, 한국문집총간 64
鄭經世,『愚伏集』, 한국문집총간, 68
韓百謙,『久菴遺稿』, 한국문집총간 59
『光海君日記』

『宣祖實錄』
『仁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DB

2. 논문

김경숙, 「조선후기 韓·日서적 교류 고찰」, 中韓人文科學硏究會, 『한중인문학연구』 23, 2008, pp.227-259.
김형찬, 「조선시대 지식생산체계의 연구방법과 지식사회의 층위」,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pp.9-29.
신병주, 「17세기 전반 북인 관료의 사상-김신국·남이공·김세렴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8, 1992, pp.129-150.
_____,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허목·윤휴·유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한국문화』 19, 1997, pp.157-192.
_____, 「남명학파와 화담학파의 학풍 계승에 관한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53, 2004, pp.161-185.
_____, 「화담학과 근기사림의 사상」,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47, 2005, pp.33-78.
심경호, 「조선 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14, 2009, pp.413-449.
윤재환, 「근기남인 학통의 전개와 성호학의 형성」, 온지학회, 『온지논총』 36, 2013, pp.8-47.
이승수, 「17세기 후반 지식인의 邵雍·陸九淵·陳亮 수용양상 연구-拙修齋와 三淵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31, 2001, pp.181-205.
이진경, 「近畿南人의 도가사상 연구」, 충남대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36, 2016, pp.317-358.
정도상, 「東溟 金世濂의 「槎上錄」 연구-澤堂 李植의 批評을 中心으로」,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20, 2002, pp.177-198.
정호훈, 「17세기 전반 京畿南人의 世界觀과 政治論」,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11, 2001, pp.191-264.
지금완, 「韓百謙의 『久菴遺稿』 譯註」,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406.
허재영, 「지식 생산과 전파 수용에 따른 지식 권력 연구 방법론」, 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66, 2018, pp.177-204.

3. 단행본

금장태, 『韓國儒學史의 理解』, 민족문화사, 1994.
정호훈, 『朝鮮後期 政治思想 硏究-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004.
陳淳 저・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피터 버크,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생각의 날개, 2015.
황광욱, 『화담 서경덕의 철학사상』, 심산문화, 2003.

(**투고일**: 2018. 5. 16 **심사완료일**: 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1)

김효정
소속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보조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우편번호 : 16890) 상경관 530호
전자우편 : ipuni1004@naver.com

[Abstract]

The Companionship of Literary Men of the Namin Originated from Bukin(北人系 南人)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 The aspects of Knowledge exchange -

Kim, Hyo Joung

The 17th century was the period when national crisis called Horan(胡亂) swept Joseon after the Waeran(倭亂) and people strived to overcome the plight. Namin intellectuals originated from Bukin interacted acoss Geungi, Yeongnam(嶺南) province, and parties and promoted active knowledge exchange.

Enthusiastic intellectual debate continued between Han Bae-gyeom(韓百謙) and Jeong Gyung-sae(鄭經世), and Lee Su-gwang(李睟光) and Jeong Gyung-sae by exchanging correspondence a couple of times. In this way, they expanded knowledge scope by revising and improving knowledge as they accept or rebut opinions of their counterparts. In addition, Kim Se-ryeom(金世濂) strived to spread Sung-Confucianism(性理學) knowledge in northern regions with Lee Sik(李植) by revising *Seongrijaeui(性理字義)* brought from Japan and publishing this book.

Key words: Knowledge exchange, Namin originated from Bukin, Yeongnam Namin, Seoin, Acceptance of knowledge, Spread of knowledg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6A3A01079180)